

#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서 0.03% Tacrolimus (Protopic®) 연고 도포 후 발생한 잠행 백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학교실

최재우 · 조성문 · 김진용 · 염꽃보라 · 최미라

= Abstract =

## Tinea Incognito Caused by Application of 0.03% Tacrolimus (Protopic®) Ointment in Atopic Dermatitis Patient

Jae Woo Choi, Seongmoon Jo, Jin Yong Kim, Kkot Bora Yeom and Mi Ra Choi

Department of Dermat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We report a case of tinea incognito in a 29-year-old man after applying the 0.03% tacrolimus ointment. He was known atopic dermatitis patient and has been treated with intermittent application of tacrolimus. For his facial pruritus 0.03% tacrolimus ointment was prescribed, and after one week he developed annularly grouped erythematous plaques and patches around the ointment-applied area. The KOH smear revealed multiple fungal hyphae. Dermatologists should be aware of the possibility of topical tacrolimus to be the causative agent for tinea incognito.

[Korean J Med Mycol 2012; 17(4): 240-242]

**Key Words:** Tinea incognito, Tinea faciei, Tacrolimus

Dear Editor

잠행 백선 (Tinea incognito)은 일종의 피부 사상균 감염증으로서, 초기에 습진으로 오인하고 국소 혹은 전신 스테로이드제제를 사용할 경우, 세포 매개성 면역이 저하되고 감염 부위의 염증 반응이 억제되어 피부 증상이 전형적인 피부 사상균 감염증과는 다른 양상을 띤다<sup>1</sup>. 즉, 전형적인 고리 모양 홍반 대신에, 초기 잠행 백선은 습진, 건선, 주사, 그리고 피부경화증 모양 등의 비전형적인 형태를 띄어 진단이 늦어지고, 적절한 항진균 치료가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sup>2</sup>. 최근에는 건선, 지루피부염, 및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

하기 위해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인 tacrolimus와 pimecrolimus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들은 장기간 도포하여도 국소 스테로이드제제와 같은 피부 위축 등의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제들도 도포 부위에 국소적으로 면역억제를 유도하므로 잠행 백선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sup>3</sup>.

29세의 남자 환자가 안면의 건조증과 가려움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유아기에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받고 국소 스테로이드 도포제로 치료받았으며, 최근 5년 동안은 tacrolimus 0.03% 도포제로 변경하여 간헐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했다. 환자는 안면 부위에 수일 전부터 가려움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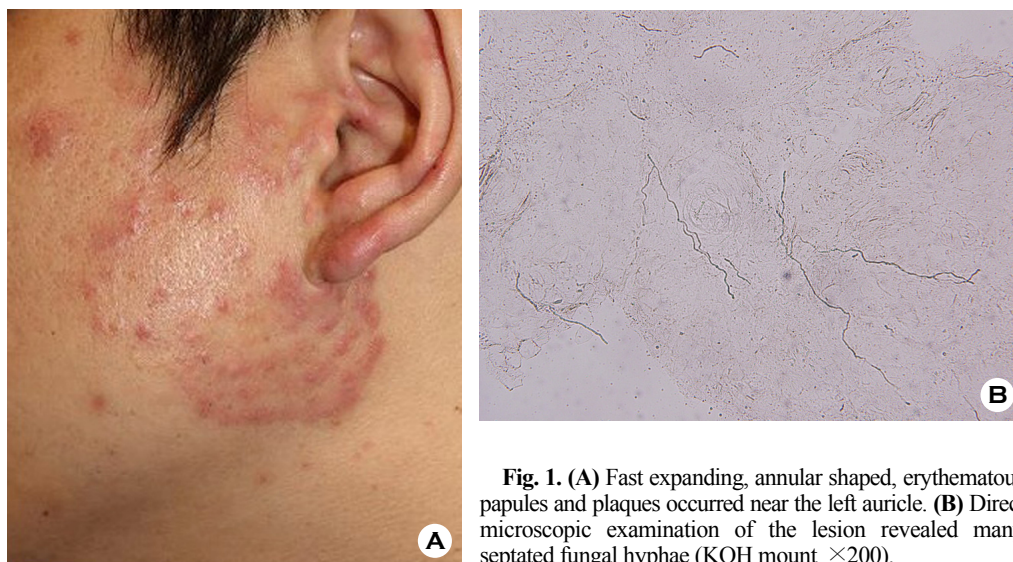
접수일: 2012년 10월 17일, 수정일: 2012년 12월 17일, 최종승인일: 2012년 12월 17일

†교신저자: 최미라, 110-744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Tel: +82-2-2072-2417, Fax: +82-2-742-7344, e-mail: miramira80@naver.com

고 한다. 내원 당시 환자는 양측 뺨에 약간의 각질을 동반하는 소수의 열은 홍반성 반점 이외에는 특이 소견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 이외에는 이환된 질환이 없었고, 내원 전 한달 동안은 일체의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기존의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증상



**Fig. 1.** (A) Fast expanding, annular shaped, erythematous papules and plaques occurred near the left auricle. (B) Direct microscopic examination of the lesion revealed many septated fungal hyphae (KOH mount  $\times 200$ ).

**Table 1.** Previous and current reported cases of tinea incognito in Korean academic journals

Sex/ Age	Location	Tinea pedis	Previous topical treatment	Clinical manifestation	Antifungal treatment	Isolated species
F/23	Arm	No	Steroid	Eczema-like	Oral and topical	<i>Trichophyton mentagrophytes</i>
F/15	Leg	No	Steroid, Pimecrolimus	Eczema-like	Oral and topical	<i>Trichophyton rubrum</i>
F/40	Face	Yes	Steroid	Eczema-like	Oral and topical	<i>Trichophyton mentagrophytes</i>
M/49	Face	Don't now	Steroid	Furuncle-like	Oral and topical	<i>Trichophyton rubrum</i>
M/8	Face	No	Pimecrolimus	Eczema-like	Oral and topical	<i>Trichophyton mentagrophytes</i>
F/70	Face	No	Steroid	Folliculitis-like	Oral and topical	<i>Trichophyton rubrum</i>
F/64	Face	Don't know	Steroid	Eczema-like	Oral and topical	<i>Trichophyton mentagrophytes</i>
F/47	Face	Yes	Steroid	Eczema-like	Oral and topical	<i>Trichophyton mentagrophytes</i>
M/29*	Face	No	Tacrolimus	Eczema-like	Topical only	Don't know

\*Current case.

으로 판단하고 tacrolimus 0.03% 연고를 처방하였다. 환자는 연고를 도포하며 가려움증은 매우 호전되었으나, 일주일이 경과하며 좌측 귀 주변으로 고리 모양의 홍반성 반과 판이 발생하여 급격히 주위로 확산되었다 (Fig. 1A). 병변에서 시행한 KOH 검사 상 균사가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Fig. 1B). 따라서 잠행 백선으로 진단하고, tacrolimus 연고 사용을 중단하고 isoconazole 크림을 3주간 도포함에 따라 병변이 호전되었다.

잠행 백선은 1968년 처음 명명된 이래로, 외래에서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문헌 상으로 총 8예가 보고된 바 있다<sup>1,2,4-6</sup>. 남자 (2/8)보다는 여자 (6/8)에서, 주로 안면 (6/8)에서, 발바닥, 발톱 무좀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 (4/6)에서 발생한 증례가 더 많았다. 발생 당시 연령은 8~70세로 다양하였고, 선행된 국소 제제는 주로 스테로이드 (7/8)이었고, 일부에서는 pimecrolimus cream (2/8)이었다. 임상양상은 습진양 (6/8)이 주를 이루었으며, 모든 증례에서 경구와 더불어 국소 항진균제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다 (Table 1). 본 증례에서는, 잠행 백선이 신체 기타 부위에 백선의 증거가 없으며 습진양으로 안면에 발생하였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보고들과 유사하나, 선행 국소 도포제제가 tacrolimus이고, 경구 항진균제 없이 국소 도포제로만 치료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비록 원인균 동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에 대

하여 스테로이드를 대신하여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잠행 백선이 기저 습진 병변의 악화로 오인되어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Hwang SM, Kim DM, Suh MK, Ha GY, Kim JR. Eczema-Like Tinea Incognito Occurring Leg. Kor J Med Mycol 2011;16:51-55
2. Lee JS, Cho YS, Song KH, Hwang SR, Park J, Yun SK, et al. Tinea Incognito with Changes in Clinical Feature Related to Antifungal Treatment. Kor J Med Mycol 2011;16:118-123
3. Arenas R, Moreno-Coutino G, Vera L, Welsh O. Tinea incognito. Clin Dermatol 2010;28:137-139
4. Choi YL, Kim JA, Rho NK, Lee DY, Lee JH, Yang JM, et al. A Case of Tinea Incognito Induced by 1% Pimecrolimus (Elidel(R)) Cream. Korean J Dermatol 2006;44:731-733
5. Kang HY, Son HC, Lim YS, Cho YW, Han JY. A Case of Tinea Incognito on the Face due to *Trichophyton mentagrophytes*. Korean J Dermatol 2000;38:1124-1126
6. Yang CW, Lee BG, Lee MH, Kim NI. A Case of Tinea Incognito. Korean J Dermatol 1989;27:79-82